

주간 전남 농업

VOL. 263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2019년 12월 셋째주

주간 날씨정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사과나무 '부란병' 12월부터 4월 사이 집중 발생
정책동향 및 홍보 전남농기원,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농업경영체 수상 패거
전남 시군 농정 동향 여수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소득보전금 지원



전남농기원,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농업경영체 수상 패거



전라
남도 농업기술원
Jeolla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5

- ▶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3~2도, 최고기온 : 7~10도)보다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0~1mm)보다 많겠음

2. 농산물 관측정보 6

- ▶ 사과
- ▶ 배
- ▶ 감귤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0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4.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4

- ▶ 사과나무 ‘부란병’ 12월부터 4월 사이 집중 발생
- ▶ 청포도 수확 시기 진단하는 ‘휴대용 도구’ 개발



5. 정책 동향 및 홍보안내 17

- ▶ 전남농기원,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농업경영체 수상 쾌거
- ▶ 전남농기원, 중국산 대체 저비용 목이버섯 배지 생산기술 연사회
- ▶ 지역특화작물 농약허용물질강화제도 사각지대 없앤다
- ▶ 곤충식품, 해외시장 겨냥해 지방자치단체와 맞손
- ▶ 가뭄과 염분저항성 동시에 높이는 벼 유전자 발견
- ▶ 전남도, 오리농장 방역실태 일제 점검
- ▶ 가축사료 대체원료 발굴로 농가소득을 높인다
- ▶ 양봉산업 발전 위해 3개 기관 손잡는다
- ▶ 가뭄과 염분저항성 동시에 높이는 벼 유전자 발견
- ▶ 전남도, 2020년 동물방역축산물 안전에 730억

6.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1

- ▶ 여수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소득보전금 지원
- ▶ 곡성군, 딸기 11일 태국 시작으로 올해 수출길 포문
- ▶ 곡성군, 토란 생산자 가락공판장 찾아 유통현장 살펴
- ▶ 고흥군,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 설명회 개최



- ▶ 해남군, 농산물 유통·농식품 업무 평가 최우수상
- ▶ 해남군, 농업회사법인 무화담(주) 내년부터 홍콩에 청무화과 수출
- ▶ 해남군, 땅끝황토친환경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 ▶ 무안군, 광주·전남 최초 양파 전문생산단지 지정
- ▶ 장성군, 농가에 농업유용미생물 무상공급 ‘호응’

7. 해외 농업정보 41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19.12.16. 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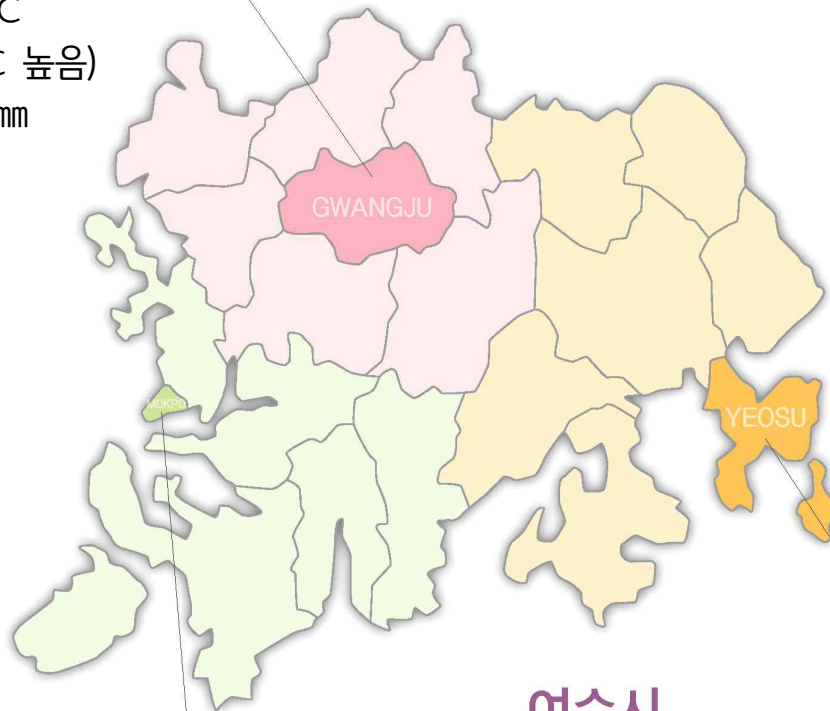
8. 농식품 빅데이터(수출입)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42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6.0℃
(평년대비 3.4℃ 높음)
- 최고기온 : 10.0℃
(평년대비 2.5℃ 높음)
- 최저기온 : 2.0℃
(평년대비 3.4℃ 높음)
- 강 수 량 : 0.9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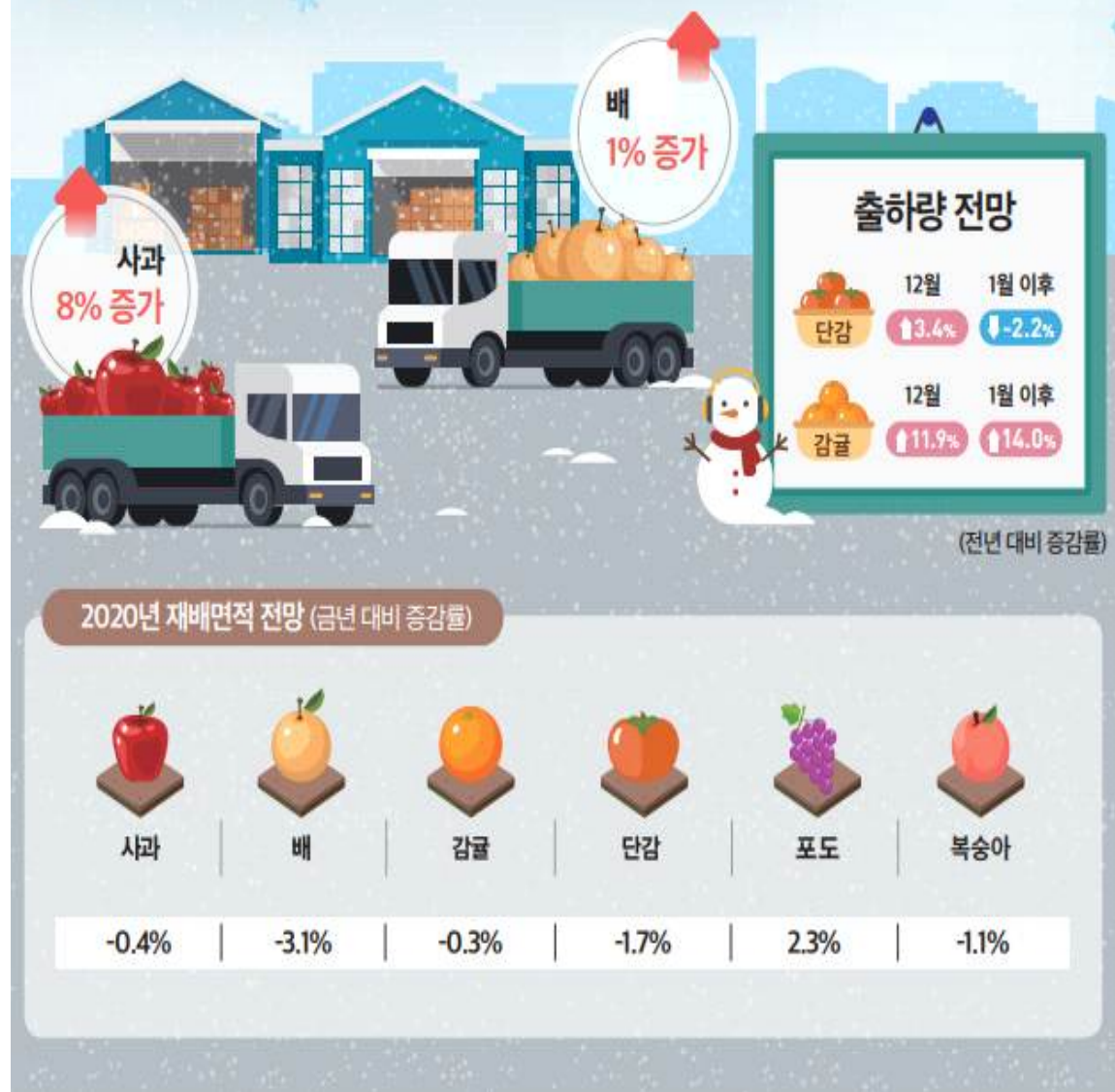
목포시

- 평균기온 : 5.7℃
(평년대비 1.8℃ 높음)
- 최고기온 : 8.1℃
(평년대비 0.3℃ 낮음)
- 최저기온 : 3.3℃
(평년대비 2.9℃ 높음)
- 강 수 량 : 0.7mm

여수시

- 평균기온 : 6.9℃
(평년대비 2.3℃ 높음)
- 최고기온 : 11.0℃
(평년대비 2.5℃ 높음)
- 최저기온 : 2.9℃
(평년대비 1.4℃ 높음)
- 강 수 량 : 0.4mm

2019년산 사과·배 저장량 전년 대비 증가 전망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과

저장량 : 올해 사과 저장량 전년보다 8% 증가

- 2019년산 사과 저장량(12월~익년 6월)은 전년보다 8% 많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후지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최근 사과 시세가 낮아 저장을 늘리려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후기 일조량 부족으로 착색이 지연되어 수확이 전년보다 10일가량 늦어지면서 저장성(경도)은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출하 : 12월 사과 출하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12월 사과 출하량은 전년보다 2%, 내년 1월 이후 출하량은 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지 수확기인 10~11월 가격 약세로 12월 출하보다 내년 1월 이후에 출하하려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격 : 12월 사과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12월 후지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증가하고, 사과 선택이 좋지 않아 전년(2만 7,900원)보다 낮은 상품 10kg상자에 2만 3천~2만 5천 원으로 전망된다.





배

저장량 : 올해 배 저장량 전년 대비 1% 증가

- 2019년산 배 저장량(12월 ~ 익년 7월)은 생산량이 증가 하였고 대과 비율도 높아 전년보다 1% 증가한 9만 2천 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8년산 저장배 가격 강세로 저장을 늘리려는 농가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하 : 12월 배 출하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12월 배 출하량은 전년보다 1% 많은 1만 3천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전남 나주·영암·순천 지역은 과피 얼룩 등 생리 장애 발생이 많고, 경기 안성 등 중부 지역은 열고 발생이 많아 상품성이 낮은 과 위주로 출하할 농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내년 1월 이후 배 출하량은 저장량 증가로 전년보다 1% 많은 7만 9천 톤 내외로 예상된다.

가격 : 12월 배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12월 신고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4만900원)보다 낮은 상품 15kg상자에 3만 6천 ~ 3만 9천 원으로 전망된다.





감귤

출하 : 12월 노지온주 출하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12월 노지온주 출하량은 전년보다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말 이후 태풍 및 잦은 강우로 일조량이 부족하여 착색이 늦고, 당도 향상을 위해 수확을 늦춘 농가가 많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 내년 1월 이후 출하량은 조생온주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14%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품질 : 12월 노지온주 당도 전년대와 비슷할 듯

- 12월에 출하될 노지온주의 당도는 전월(8.26°Bx)보다 개선되어 전년대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파악되었다. 크기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2S~S과가 많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격 : 12월 노지온주 가격 전년대와 낮을 전망

- 12월 노지온주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1,608원)보다 낮은 kg당 1,100~1,400원으로 전망된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목별 도소매 정보

식량작물

(2019. 12. 16. 기준 / 단위 : 원)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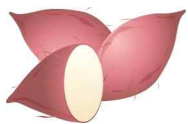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6)	1주일전 (12/09)	전년대비
20kg	46,960	46,960	↓ 4.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7,260	49,380	38,962	↑ 20.5

콩(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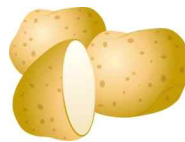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6)	1주일전 (12/09)	전년대비
35kg	181,400	181,400	↓ 2.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9,000	186,500	165,433	↑ 9.7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6)	1주일전 (12/09)	전년대비
10kg	25,000	25,600	↓ 32.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4,950	37,150	25,150	↓ 0.6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6)	1주일전 (12/09)	전년대비
20kg	22,800	22,200	↓ 52.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2,950	47,800	34,787	↓ 34.5

채소류

배추(가을)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6)	1주일전 (12/09)	전년대비
20kg	9,900	10,200	↑ 56.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0,325	6,308	5,741	↑ 72.4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6)	1주일전 (12/09)	전년대비
35kg	11,400	10,600	↑ 77.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9,750	6,425	6,375	↑ 78.8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6)	1주일전 (12/09)	전년대비
10kg	63,000	66,667	↑ 9.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0,333	57,750	57,472	↑ 9.6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6)	1주일전 (12/09)	전년대비
20kg	19,800	19,800	↓ 18.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200	24,350	24,213	↓ 18.2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6)	1주일전 (12/09)	전년대비
30kg	435,000	435,000	↓ 27.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32,000	601,000	467,667	↓ 7.0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6)	1주일전 (12/09)	전년대비
20kg	90,000	90,000	↓ 30.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90,000	130,000	130,000	↓ 30.8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6)	1주일전 (12/09)	전년대비
20kg	46,000	48,600	↑ 25.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4,550	36,800	29,047	↑ 58.4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6)	1주일전 (12/09)	전년대비
5kg	18,000	18,200	↓ 8.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900	19,600	22,113	↓ 18.6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6)	1주일전 (12/09)	전년대비
10kg	32,600	30,000	↑ 10.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4,800	29,550	25,673	↑ 27.0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6)	1주일전 (12/09)	전년대비
10kg	30,000	34,800	↓ 6.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7,800	32,000	39,903	↓ 24.8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6)	1주일전 (12/09)	전년대비
20kg	15,300	15,000	↑ 14.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125	13,350	19,660	↓ 22.2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6)	1주일전 (12/09)	전년대비
1kg	1,740	1,840	↓ 2.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40	1,780	1,851	↓ 6.0

수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6)	1주일전 (12/09)	전년대비
1개	19,200	18,600	↑ 23.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0,150	15,550	14,250	↑ 34.7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6)	1주일전 (12/09)	전년대비
5kg	27,800	21,600	↑ 10.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5,800	25,200	18,567	↑ 49.7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6)	1주일전 (12/09)	전년대비
10kg	38,400	36,800	↓ 8.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5,200	41,800	36,853	↑ 4.2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6)	1주일전 (12/09)	전년대비
15kg	44,600	43,000	↓ 5.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4,200	47,200	38,973	↑ 14.4

참다래(국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6)	1주일전 (12/09)	전년대비
10kg	36,600	36,400	↑ 12.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32,550	30,878	↑ 18.5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6)	1주일전 (12/09)	전년대비
100g	8,751	8,928	↑ 6.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938	8,257	7,791	↑ 12.3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6)	1주일전 (12/09)	전년대비
1kg	5,287	5,028	↑ 3.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243	5,098	5,276	↑ 0.2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6)	1주일전 (12/09)	전년대비
30kg	490,000	490,000	↓ 1.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4,000	496,100	511,320	↓ 4.2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6)	1주일전 (12/09)	전년대비
2kg	15,200	14,200	↑ 19.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200	12,700	12,907	↑ 17.8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6)	1주일전 (12/09)	전년대비
2kg	8,000	7,800	↓ 1.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100	8,100	8,040	↓ 0.5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6)	1주일전 (12/09)	전년대비
100g	1,759	1,796	↑ 0.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95	1,743	1,939	↓ 9.3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6)	1주일전 (12/09)	전년대비
30개	5,370	5,392	↑ 5.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531	5,077	5,726	↓ 6.2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12/16)	1주일전 (12/09)	전년대비	
1L	2,613	2,615	↓	0.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15	2,621	2,547	↑	2.6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9. 12. 16. 기준 / 단위 : 원)

한우(천원/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957	5,938	5,691	↑ 0.3	↑ 4.7
거세	6,872	6,818	6,449	↑ 0.8	↑ 6.6

한우송아지(천원/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215	3,261	3,056	↓ 1.4	↑ 5.2
수	3,872	3,933	3,548	↓ 1.6	↑ 9.1

육우(천원/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296	3,326	3,67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9	↓ 10.4

젖소수송아지(천원/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33	431	255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5	↑ 69.8

돼지(천원/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31	340	31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2.6	↑ 4.7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199	842	1,70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42.4	↓ 29.5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182	1,204	879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8	↑ 34.5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367	2,367	2,373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 0.3

*자료 출처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사과나무 ‘부란병’ 12월부터 4월 사이 집중 발생

- 나무 죽거나 자람새 약해져... 가지 친 자리엔 약제 발라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최근 사과 과수원에서 발생이 늘고 있는 부란병의 효과적인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 부란병(*Valsa mali*)은 사과나무의 죽은 조직을 통해서만 감염되는 곰팡이병이다. 발병 시 나무껍질이 갈색으로 변하고 부풀다가 자람새가 약해지거나 죽는다.
- 농촌진흥청은 지난 27년간 4~11개 지역의 사과 주산지 중 13~28곳의 과수원을 조사한 결과, 평균 41.9%에서 부란병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주산지 과수원의 발생 비율은 31.8%로 나타났다.
- 부란병은 12월부터 이듬해 4월께 많이 발생하므로 겨울철 가지치기 후 나무의 상처 부위를 잘 관리해야 한다.
- 지난해 부란병 발생이 심했던 과수원은 겨울을 난 후 전용 약제를 뿌려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이외에 줄기마름병, 그을음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가지를 친 후에는 절단 부위에 도포제(바르는 약제)를 발라준다.
- 부란병에 걸린 나무는 비가 내리고 2~3일 뒤 줄기나 가지에서 끈적끈적한 주황색 또는 붉은색 물질이 나온다. 잎이 나기 전에는 찾아내기 어렵지만, 생육이 시작되는 3월께는 확인할 수 있다.

- 이런 증상이 발견되면 점질물이 흘러나오는 부분과 주변까지 걷어내고 즉시 전용 약제를 발라준다. 병든 부분 주위에는 칼로 흙집을 낸 뒤 약제를 뿌려야 한다.
- 이때 갈색으로 변한 조직이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없애고, 재발을 막기 위해 흙집 낸 곳에 약제를 빠짐없이 뿌려준다.

*출처 : 농촌진흥청



청포도 수확 시기 진단하는 ‘휴대용 도구’ 개발

- 샤인머스켓 자람새 · 꽃송이 길이 판단 · 품질 향상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청포도 ‘샤인머스켓’의 품질을 한눈에 판단할 수 있는 휴대용 도구를 개발했다.
- 샤인머스켓은 청포도 열매 특유의 미묘한 색 변화만으로 농가에서 직접 수확 시기를 판단하고 나무 자람새를 진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이에 관련 기술 개발을 원하는 현장의 요구가 이어져 왔다.
- 이번에 개발한 ‘씨 없는 청포도 생산용 복합 일람표(차트)’는 가로 17cm, 세로 7cm의 플라스틱 책갈피 형태로 가지고 다니기 편리하다. 수확 시기와 나무 자람새, 꽃송이 길이 등 주요 내용을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어 작업 효율도 높였다.
- 먼저, 수확 시기는 포도 껍질이 연한 연둣빛이 돌고(4~5단계), 당도는 18브릭스, 꽃이 모두 핀 후 105일 후가 알맞다.
- 나무 자람새는 눈으로 측정이 어려운 만큼 일람표의 짧은 가지치기 위치의 가지 굵기인 11~13mm인지 확인한다.
- 손이 많이 가는 꽃송이 다듬기는 꽃송이 길이를 무게에 맞춰 500g에는 3cm, 700g에는 4cm 정도로 조절한다.
- 식물 호르몬(생장조절제) 2차 처리는 꽃 핀 후, 포도알 크기가 8~10mm일 때가 알맞다.
- 이번 복합 일람표는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먼저 보급하고 내년에 농가 등에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전남농기원,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농업경영체 수상 쾌거



전남농기원,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농업경영체 수상 쾌거

- 2019년도 신선농산물 수출 박차로 도내 2개 농업경영체 수상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농촌진흥청에서 개최한 「2019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내 2개 농업경영체가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5일 밝혔다.
- 이번 경진대회는 농촌진흥청이 수출농업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전남도에서 신선농산물분야에 출전한 해남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최우수상, 강진 농업회사법인 (주)탐진들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 최우수상을 수상한 땅끝황토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09년 설립되어 2017년 수출쌀 작목반을 구성하고, 친환경 하양가바쌀을 개발해서 해남군과 전남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지속적으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미국(USDA), 할랄(JAKIM), 중국 유기재배·가공(CQC) 인증 등 국제적 규격 인증제도 획득으로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인정받아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또한 우수상을 수상한 농업회사법인 (주)탐진들은 지난 1994년에 설립되어, 1996년 일본수출을 시작으로 2018년 농림부지정 최우수 신선농산물 수출단지로 지정되는 등 매년 1,000톤 이상의 파프리카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 특히 수출농업 우수사례 상품전시를 통해 수상한 농업경영체의 성과와 혁신성을 홍보하고, 우리 농산물로 가공한 농식품의 중국, 베트남 수출 상담과 세미나로 관련 종사자와 농업인의 관심을 끌었다.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김성일 원장은 “농도인 전라남도에서 신선농산물 수출 우수사례 성과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알리며, 수출시장 개척과 새로운 유통채널개척을 통한 신선농산물 홍수출하 방지 등 농산물 가격안정으로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전남농기원, 중국산 대체 저비용 목이버섯 배지 생산기술 연사회 •

- 목이버섯 배지 생산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11% 절감 기여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과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장흥 삼광버섯영농조합법인에서 농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이버섯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사업 연사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 이번 연사회는 목이버섯 다목적 랩포장기 현장 연시, 배지 대량생산기계설비(입봉기·탈병기) 현장 연시 순으로 진행됐다.
- 국내 목이버섯 재배 농가는 수동 포장 방식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배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안정적인 생산 등 재배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 이에 삼광버섯영농조합법인 차주훈 대표는 이를 해결하고자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목이버섯 ‘용아, 건이, 새얀’ 품종 확대 재배로 생산비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 사업을 통해 랩 포장기, 배지 생산설비 신기술을 도입한 경영모델을 개발하였다.
- 현재 목이버섯 배지 비용은 1.2kg 기준 봉지당 국산 1,800원, 중국산 1,500원 수준인데, 이번 사업을 통해 국산 배지 비용을 1,600원 수준으로 낮추어 중국산 수입 목이버섯 배지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다.
- 본 경영모델에 투입된 주요 농기계는 랩 포장기, 원통형 입봉기, 탈병기이다. 입봉기와 탈병기를 활용한 배지 대량생산방식 도입으로 1일 생산량이 7,000봉에서 16,000봉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소득은 30백만 원에서 69백만 원으로 130% 향상됐다. 아울러 배지 3톤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다.



- 또한 차주훈 대표는 배지 혼합원료로 포플러 40%, 참나무 40%, 미강 20%를 사용했는데 여기에 수확 후 배지를 재활용하는 새로운 원료 혼합 기술을 투입하여 배지 생산단가를 낮추고 수량을 2% 증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손장환 팀장은 “목이버섯 재배 확대를 위해 노력한 차 대표를 본받아, 농산물 생산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경영모델 개발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물 농약허용물질강화제도 사각지대 없앤다

- 농촌진흥청 · 전국 농업기술원 10종 선발, 종합방제지침 제작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전국의 8개 도 농업기술원과 지역특화작물 10종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 방제법을 협업 연구해 개발한 종합방제매뉴얼(지침)을 보급한다고 밝혔다.
- 기능성 작물에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새로운 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지역도 늘고 있다.
- 올해 초 시행된 농약허용물질강화제도(이하 PLS)에 따라 신소득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 정보 제공은 물론, 관련 연구 개발과 기술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번에 개발한 종합방제매뉴얼은 각 지역에서 중점 육성 중인 신소득작물과 특화작물 한두 종을 선정하고, 병해충 방제 연구가 부족한 10종을 대상으로 먼저 제작한 것이다.
- 책자에는 블루베리, 시금치, 결구상추, 아스파라거스, 대추, 생강, 오디 생산용 뽕나무, 매실, 오미자, 여주까지 모두 10종에 대한 주요 병해충 발생 정보와 방제법, 작물별 농약안전사용기준 등을 실었다.
- 작물별 발생 병해충은 시금치 14종 등 93종으로, 피해 증상과 발생 시기 등도 설명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 아울러, 작물에 따라 사용 가능한 농약 정보(잠정안전사용기준 설정 농약 포함)도 함께 실어 PLS에 대응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기별 방제 방법을 정리한 방제 달력을 넣어 효율적인 방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곤충식품, 해외시장 겨냥해 지방자치단체와 맞손

- 농촌진흥청, 12일 경남 진주서 곤충식품산업협의체 및 심포지엄 -

- 최근 고소애가 암 환자의 면역력을 높인다는 임상실험 결과가 보고되면서 식용곤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더 커지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12일 경남 진주에서 곤충식품의 수출 판로 개척과 해외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 경상남도농업기술원과 함께 ‘곤충식품산업협의체 및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을 연다.
- 이 자리에는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곤충 사육 농가, 식품업체, 소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 심포지엄에서는 곤충식품의 새로운 소비 경향(트렌드), 경남 지역 곤충산업 현황과 발전 방안, 곤충식품의 해외 마케팅 전략 ,선도 농가 현장 사례 발표, 식용곤충 경영 분석, 곤충산학협력단의 융복합 성과와 식용곤충 산업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 또한, 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식용곤충 제품이 전시되며, 식용곤충으로 만든 요리도 맛볼 수 있다.
- 지역 내 식용곤충 농가를 둘러보며 제품 제조와 가공, 유통단계에서 원료 표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한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소비자, 생산 농가, 산업체와 협력해 식용곤충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가뭄과 염분저항성 동시에 높이는 벼 유전자 발견

- 이상기후 대응 작물 개발 위한 기반 기술 마련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벼에서 가뭄저항성과 염분저항성을 동시에 높이는 유전자 OsZF1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견한 OsZF1은 벼가 스트레스에 대응해 만들어내는 유전자 중 하나다. 세포 내 mRNA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상호관계를 추적해 유전자와 mRNA, 단백질의 기능을 밝히는 전사체를 연구해 찾아냈다.
- OsZF1 유전자가 많이 발현된 벼에 5일 동안 물을 주지 않거나 염화나트륨(NaCl)으로 토양 속 염분을 높였다가 원래 상태로 되돌리자 대조구인 ‘동진’ 벼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30% 이상 낮게 나타났다.
- 식물은 앱시스산(ABA)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환경 스트레스를 극복한다. 이때 OsZF1이 많이 발현된 벼는 가뭄과 염해에 반응해 앱시스산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또한, OsZF1이 앱시스산을 억제하는 탈인산화효소 단백질의 분해를 촉진해 앱시스산의 작용을 극대화해 스트레스 저항 효과가 유지되게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와 함께 OsZF1은 유비퀴티네이션으로 세포 내 단백질 분해를 촉진하는 E3 ligase 활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세포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반응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기작이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발견한 OsZF1에 대해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전남도, 오리농장 방역실태 일제 점검

- 20일까지 차량 출입통제CCTV 운영 현황생석회 살포 등 집중 -

- 전라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사육 중인 모든 오리농가 270호를 대상으로 농장별 차단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라남도는 AI 위험 시기에 농장단위 차단방역에서 축산차량 출입이 가장 위험하므로 가금농장 내 축산차량 진입은 금지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 농장에 축산차량 진입 시 철저한 세척소독 후 진입토록 하고 있다.
- 또한 가금농가(육계육용오리)의 입식 전 신고와 점검, 출하 전 검사(오리) 등 입식출하 관리를 하고 있다. 일제 입식출하(all-in, all-out) 현황에 대해선 출하 후 7일이 경과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해 축사에 남아있는 가금이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500만 원이다.
- 오리 사육농장에서는 농장 출입구부터 울타리 둘레로 생석회를 지속적으로 재 살포해야 한다. 전라남도는 지난 10월부터 4회 생석회를 일제 살포했다. 오는 18일 5차로 생석회 일제 살포할 계획이다. 농장에선 폭 30cm이상, 두께 2~3cm 내외로 살포해 생석회 차단방역 벨트를 만들어야 한다.
- 전라남도는 별도의 점검반을 편성해 20일까지 오리농장의 축산차량 통제 강화 조치 이행 상황, CCTV 설치운영 현황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다. 시군은 농가별 전담공무원 등을 통해 매일 농가별 방역 준수 사항을 지도점검하고 있다.



-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오리농가의 방역 기준 준수 여부 등 농가 차단 방역 실태를 일제 점검해 미준수 농가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농가의 주요 방역 준수 사항은 CCTV 설치 및 운영, 농장입구에 고정형 소독시설 설치, 농장 입구 출입통제 시설안내판 설치, 울타리 및 담장 설치, 방역실에 방문자용 별도 용품 구비, 축사에 그물망 등 차단망 설치, 소독실시 기록부 비치 및 기록 등이다.

*출처 : 전라남도





가축사료 대체원료 발굴로 농가소득을 높인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경태)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소 사료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료 대체원료를 활용한 축우용 배합 사료」 개발에 성공하였다.
- 축산 농가의 생산비 중 가장 많은 비중(전체의 40~70%)을 차지하는 사료비가 축산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 배합사료의 97%이상을 차지하는 주원료는 옥수수, 소맥, 대두박 등으로 이 주원료를 더 낮은 가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원료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 (주)농협사료 연구팀은 기존에 사용했던 배합사료의 주원료 비율을 87%까지 낮추고, 대체원료 3종(카카오박, 재고미 및 카사바부산물)을 활용한 소 배합사료를 개발하고 제품화하였다.
- 대체원료 3종(카카오박, 재고미 및 카사바부산물)은 당초 주원료인 옥수수, 소맥 등 보다 가격이 싸고 대량 수급이 가능하며 영양소 성분에 변화가 없어 배합사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며 20kg당 사료비가 약 240~300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 대체 원료를 이용한 배합사료 급여 시 한우의 출하월령이 단축되고, 도체성적 개선으로 인해 축산농가에서 두당 약 50만 원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양봉산업 발전 위해 3개 기관 손잡는다

- 농촌진흥청, 11일 양봉관계기관 · 단체 업무협약 체결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국립농업과학원은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자연환경국민신탁 등과 함께 11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민관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양봉농가의 지속적인 증가로 양봉기술 개발과 양봉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해지고, 농업생태계에서 화분매개와 밀원식물의 식재 확대 요구가 있어 정부기관, 대학, 단체 간의 긴밀한 협업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3개 기관과 단체는 꿀벌품종 육성과 밀원식물 확보로 양봉산업 생산성 증대 방안 마련, 양봉전문가 양성, 귀농·취농 인력 교육 및 창업모델 제시, 농업생태계 보존 및 양봉산물 소비촉진 등 협업과 유대강화 등을 위해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 또한, 협약사항을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약기관·단체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분야별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공동대응으로 해결해 현장 중심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 촉진을 돕게 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이용범 원장은 “양봉 연구, 전문인력 양성, 밀원식물포 지원과 양봉 홍보 등을 위해 기관·단체가 모여 상호 보완적인 역할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양봉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가뭄과 염분저항성 동시에 높이는 벼 유전자 발견

- 이상기후 대응 작물 개발 위한 기반 기술 마련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벼에서 가뭄저항성과 염분저항성을 동시에 높이는 유전자 OsZF1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발견한 OsZF1은 벼가 스트레스에 대응해 만들어내는 유전자 중 하나다. 세포 내 mRNA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상호관계를 추적해 유전자와 mRNA, 단백질의 기능을 밝히는 전사체를 연구해 찾아냈다.
- OsZF1 유전자가 많이 발현된 벼에 5일 동안 물을 주지 않거나 염화나트륨(NaCl)으로 토양 속 염분을 높였다가 원래 상태로 되돌리자 대조구인 ‘동진’ 벼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30% 이상 낮게 나타났다.
- 식물은 앱시스산(ABA)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환경 스트레스를 극복한다. 이때 OsZF1이 많이 발현된 벼는 가뭄과 염해에 반응해 앱시스산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또한, OsZF1이 앱시스산을 억제하는 탈인산화효소 단백질의 분해를 촉진해 앱시스산의 작용을 극대화해 스트레스 저항 효과가 유지되게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이와 함께 OsZF1은 유비퀴티네이션으로 세포 내 단백질 분해를 촉진하는 E3 ligase 활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세포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반응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기작이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발견한 OsZF1에 대해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전남도, 2020년 동물방역축산물 안전에 730억

- 핵심 위험요인 선제 방역으로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청정 지키기로 -

- 전라남도는 2년 연속 고병원성 비발생 목표를 달성하고, 항구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구제역 청정 전남을 지켜내기 위해 2020년 동물방역과 축산물 안전 분야에 역대 최고인 46개 사업 73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 이는 올해(575억 원) 보다 155억 원 늘어난 규모다. 재원별로 국비 299억 원, 도비 127억 원, 시군비 255억 원, 자부담 49억 원이다.
- 전라남도는 고병원성AI,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동물 질병의 과거 발생 분석 결과에 따라 핵심 타깃에 선제적으로 지원, 발생 위험 요인을 원칙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 고병원성 AI 비발생 2년차 달성을 위해 가금농가 휴지기 지원 43억 원, CCTV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30억 원,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 7억 원, 생석회 차단방역 벨트 구축 7억 원, 방역의식 고취 훈련 및 야생조류 퇴치제 지원 1억 원 등 7개 사업 88억 원을 투입한다.
- 항구적 구제역 청정 전남을 지켜내기 위해 전국 유일 구제역 백신비용 100% 지원 116억 원,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3억 원, 예방백신 시술비 지원 28억 원, 백신접종 자동연속주사기 지원 3억 원, 4개 사업에 150억 원이 반영됐다.



- 국가재난형 동물 질병의 선제적 방역 및 발생 시 신속한 방역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축방역 및 소독차량 3억 원, 가축방역요원 운영 30억 원, 공동방제단 운영 50억 원, 현장 전문수의사의 공수위 위촉 13억 원, 축산차량 GPS 지원 13억 원, 통제초소 운영 45억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100억 원, 살처분 가축 처리장비 지원 6억 원, 매몰지 관리 20억 원, 긴급방역비 5억 원 등 14개 사업 285억 원이 포함됐다.
-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동물 질병 예방을 위해 21종 예방주사 및 5종 기생충 구제 70억 원,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 보정비 22억 원,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10억 원, 소 질병 치료보험 시범 16억 원, 돼지 및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 9억 원, 소 생산성 저하 질병 관리 15억 원, 젖소 유질 개선 지원 16억 원, 돼지 소모성질병 예방 8억 원, 닭 소모성질병 관리 5억 원, 꿀벌 면역력 증진 6억 원 등 17개 사업에 177억 원을 투입한다.
- 전남산 축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도축검사원 인건비 21억 원, 계란냉장차량 지원 5억 원,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 4억 원 등 4개 사업에 30억 원이 반영됐다.
- 전국적으로 지난 겨울철 고병원성 AI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구제역은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2건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이번 겨울철 국내에선 처음으로 경기도와 인천에서 14건이 발생했다. 전남은 현재 고병원성 AI 비발생 2년차를 지켜내고 있고, 구제역은 국내 육지부 유일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다.

*출처 : 전라남도



여수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소득보전금 지원

-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이달 20일까지 신청 -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이달 20일까지 ‘2019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소득보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 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감소로 인한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총 5억 원을 지원한다.
- 지원 단가는 헥타르(ha) 당 유기농은 94~122만 원, 무농약은 78~100만 원이며, 인증단계와 작물별로 차등 지원한다.
-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소득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접수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청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여수시



곡성군, 딸기 11일 태국 시작으로 올해 수출길 포문

- 곡성명품 딸기가 11일 태국을 시작으로 올해 수출길의 포문을 열었다.
- 곡성군 딸기 수출 전문단지인 (주)곡성멜론은 이번에 딸기 300kg을 태국으로 수출한 데에 이어 내년 4월까지 홍콩,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약 50톤(수출금액 5억여 원)을 목표로 딸기를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홍콩으로 수출한 24톤(수출금액 2억 3천만 원)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 이를 위해 올해 수출 주력 농가 20여 개소를 선정해 5ha 규모에 곡성딸기를 계약재배하고 있다. 안정적인 수출을 위해 계약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농약안전 생산관리, 공동선별에 의한 엄격한 품질관리 등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 군 관계자는 수출현장을 찾아 딸기 수출 농가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수출물류비 및 수출포장재 제작 지원 등 곡성 명품딸기가 세계로 계속 뻗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출처 : 곡성군





곡성군, 토란 생산자 가락공판장 찾아 유통현장 살펴

- 전남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자)는 지난 4일 석곡농협, 죽곡토란 생산농가 50여명과 함께 가락공판장을 견학하고 현지 중도매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견학은 생산농가가 직접 가락공판장 토란 유통현장을 살펴보고 토란 유통과 관련해 개선해가야 점을 깨닫게 하고자 석곡농협 주선으로 추진됐다.
- 함께 개최된 현지 간담회에서는 가락공판장과 경동시장의 4개 상회 대표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 특히 소비자가 선호하는 규격과 추석 전후 물량 조절시기 등 유통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깊은 대화가 오갔다.
- 곡성군은 곡성토란이 이미 전국적인 브랜드 인지도 기반이 마련된만큼 시장의 수요에 맞는 고품질 토란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위해 내년 토란 식재가 시작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유통시장을 견학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선진지 견학,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고품질 토란 생산농가 육성에 힘쓰는다는 계획이다.

*출처 : 곡성군





고흥군, 양파와 마늘 의무자조금 설명회 개최

- 의무자조금을 통한 양파·마늘 재배농가 도약 계기 삼아 -

-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11일 고흥 문화회관에서 양파·마늘 재배농민들을 대상으로 의무자조금 설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급조절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군은 그간 양파·마늘의 안정적인 영농경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에 따른 산지 폐기 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기에 농업인을 중심으로 제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의무자조금을 설치하게 되어, 소비확대와 수급조절을 농업인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양파·마늘 생산농민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양파·마늘의 안정적인 영농경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무자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 이에 따라 고흥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내 양파·마늘 재배 농가는 모두 의무자조금을 가입하도록 지도하여, 농민들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출처 : 고흥군





해남군, 농산물 유통·농식품 업무 평가 최우수상

- 해남군이 2019년 전라남도 농산물 유통·농식품 업무 평가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이번 농산물 유통·식품 평가는 농산물 판촉 등 유통 종합, 농식품산업 기반구축 및 판매촉진, 쌀판매 및 브랜드쌀 육성, 산지유통 경쟁력강화 등 총 4개 분야 18개 항목에 대해 실시했다.
- 해남군은 온라인 판매지원사업 적극 추진과 공공급식 지원조례 제정, 농식품산업분야자체예산 확보, 친환경쌀 학교급식 납품, 쌀 미국 수출, 해남2030 푸드플랜 수립 등 농산물 유통과 농식품 업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며, 높은 점수를 얻었다.
- 특히,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옥천농협 ‘한눈에 반한쌀’이 2년연속 대상에 선정됐고,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농가 전년대비 116% 증가, 원예산업종합계획 연차평가 A등급 획득 등 우수사례로 관심을 모았다.
-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수상은 군의 정책에 적극 참여해주신 농업인과 유통·가공업체 덕분”이라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생산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농산물 유통·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역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남군





해남군, 농업회사법인 무화담(주), 내년부터 홍콩에 청무화과 수출

- 해남군 농업회사법인 무화담(주)(대표 강소정)에서 무화과 가공품을 홍콩으로 수출한다.
- 무화담은 최근 수출 업체와 10만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건무화과, 청무화과잼, 청무화과즙 등 무화과 가공품을 내년 1월부터 홍콩으로 수출할 계획이다.
- 내년 홍콩 콰이펑 프라자 입점이 확정됐으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홍콩 식품 박람회에 참가를 통한 현지 바이어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
- 해남군 화원면에 소재한 무화담은 2014년부터 청무화과를 재배해 현재 생과 뿐만 아니라 각종 무화과 가공품을 개발, 판로를 개척하며 연 6억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 친환경 재배농법으로 아이쿱, 올가홀푸드, 농협 등에 입점해 해남 무화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있으며, 청무화과 생산농가 확산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며 지역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또한 가공품에 대한 특허 출원을 시작으로 2017년 HACCP 인증을 완료, 올해 5월 미국 FDA 등록 등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준비로 가공식품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 앞으로 아이스 청무화과도 준비과정을 거쳐 수출품목에 추가할 예정이며, 전라남도 과수연구소와의 협약을 통해 가공품목의 다양화를 위한 상품개발에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출처 : 해남군





해남군, 땅끝황토친환경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 해남 땅끝황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대표 윤영식)이 농촌진흥청‘2019년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신선농산물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지난 2009년 설립된 땅끝황토친환경은 2016년 식량작물 수출생산 단지조성 사업을 통해 수출 쌀 작목반을 구성하고, 수출용 쌀인‘하양가바쌀’브랜드를 개발, 지난해부터 미국으로 친환경 해남쌀을 수출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미국(USDA), 할랄(JAKIM), 중국 유기재배·가공(CQC) 인증 등 국제적 규격 인증제도 획득해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이번 경진대회에서도 수출농업 우수사례의 상품을 전시하는 한편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수출상담 및 세미나를 통해 우리 농산물 가공 농식품에 대한 수출 홍보를 실시했다.
- 윤영식 대표는 “해남군과 전라남도, 농촌진흥청의 지원으로 수출쌀 전문 브랜드를 개발, 수출에 이르게 됐다”며“고품질의 해남 쌀 수출로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과 새로운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 해남군





무안군, 광주·전남 최초 양파 전문생산단지 지정

- 무안군이 광주·전남 최초로 양파 전문생산단지로 지정돼 양파 수출 산업에 날개를 달게 됐다.
- 무안군은 12월 10일에 망운면 소재 영흥농산(영)에서 양파 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 현판식을 개최했다.
- 현판식에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김형목 광주전남지역본부장, NH농협무역 김진호 남부사무소장, 전라남도 식량원예과 관계자, 무안군 배성태 친환경농업과장을 비롯한 농업인 등이 참석했다.
- 군은 이번 생산단지 지정으로 세계시장에 매년 안정적으로 무안황토양파를 수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정부의 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 지정이 되면 매년 평가를 거쳐 수출물류비를 최대 8%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 군 관계자는 “양파전문생산단지(수출단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수출단지 메카로 황토의 고장 무안군을 우뚝 서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무안군





장성군, 농가에 농업유용미생물 무상공급 ‘호응’

-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생산... 땅심 길러주고 축사 악취제거 효과적 -

- 장성군은 올해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에서 8,190농가에 150톤 규모의 미생물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 군은 친환경 농축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7년 농업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준공해 운영 중에 있다. 또 생산된 미생물을 관내 농가에 전량 무상 공급하고 있어 매년 농업미생물을 이용하는 농가수와 공급량이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현재 장성군이 배양센터를 통해 생산하고 있는 미생물은 고초 · 광합성 · 효모 · 유산균의 4종이다. 고초균은 다양한 효소분비로 퇴비를 생성시키고 병충해를 방지하며 가축사료의 소화율을 높인다. 광합성균은 시설작물의 연작장해를 해소하고 작물의 생육생장을 촉진하며 가축의 체중 증량에 도움을 준다. 효모와 유산균은 땅심을 증진하고 가축사료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축사악취 제거에는 네 가지 균 모두 효과가 좋다.
- 올해에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균주 바실러스 벨레젠시스(GH1-13)를 시험 배양해 토마토, 지황 재배농가에 현장 실증했다. 그 결과 무처리구에 비해 생산량이 8 ~ 10% 증가했으며, 병 발생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었다.
- 이밖에도 장성군은 고사율이 높은 복분자에 길항미생물(*Pseudomonas chlororaphis*)을 투입해 토양 및 식물체 병원균을 분리하고, 뿌리 활력을 강화시키는 실증사업을 2년 째 추진 중이다.



- 아울러 군은 미생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매주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미생물 생산·공급 체계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실증시험포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 또한 농업유용미생물 활용 교육을 추진해 유용미생물의 효과와 활용법을 안내하고 미생물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 유두석 장성군수는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군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미생물 사용 농업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농가의 요구에 맞춰 농업미생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장성군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19.12.16. 시카고 선물거래소) •

- 주요 곡물 선물가격,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정을 발표한 이후 일제히 상승 -

-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4% 상승했다. 밀 선물가격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의 구매를 늘리는 대가로 미국의 관세를 일부 인하하는 '1단계' 무역 협정을 발표한 후 금요일 상승세로 마감했다. 달러화 약세는 미국의 곡물이 세계 시장에서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물을 지원했다. 3개의 거래에서 12월 계약은 모두 조용히 만료되었다.
-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9% 상승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미국 농수산물 구매량을 늘리는 대신 미국 관세를 일부 인하하는 1단계 무역 협정을 미국과 중국이 발표한 이후 상승 마감했다. 로사리오 곡물 거래소는 덥고 건조한 날씨가 옥수수 수확량을 줄이고 아르헨티나의 핵심 농업지역에 대두 파종을 위협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비가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1.0% 상승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미국과 중국 정부가 1단계 무역 협정을 발표한 이후 금요일 3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요일 가격은 상승했으나 무역업자들이 무역 협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으면서 이익은 감소했다.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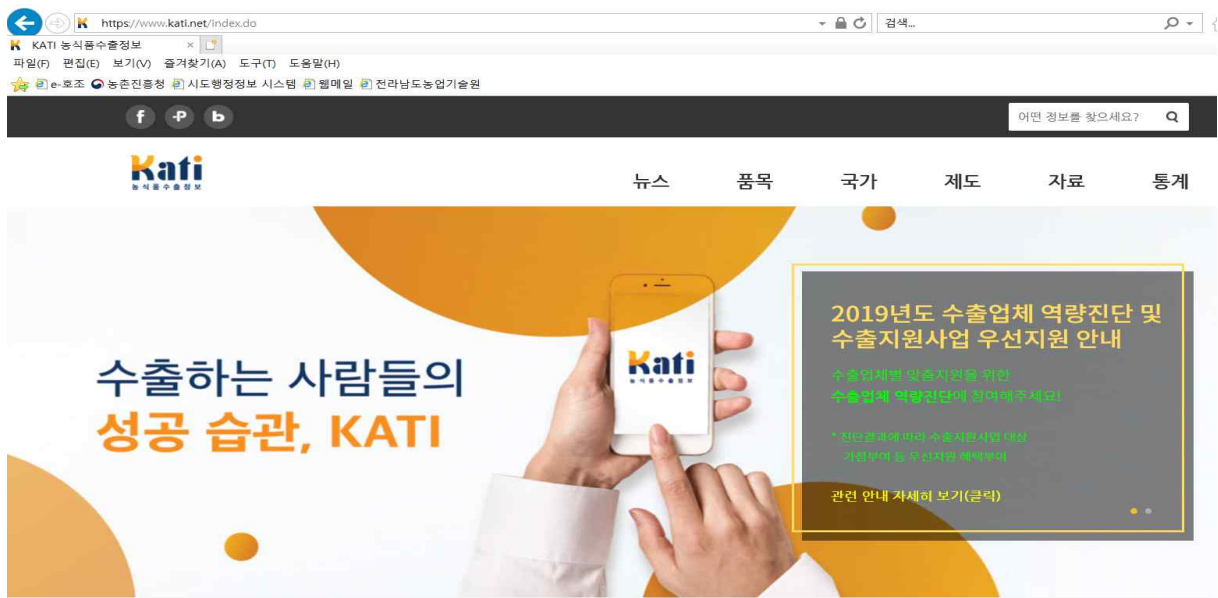
- 농사에 필요한 수출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www.krei.re.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연구정보, 관측&동향, 글로벌정보, 열린마당, 정보공개로 분류되어 있으며,
- 관측&동향에서는 농업관측정보, 임업관측정보, 농정동향, 농림어업 고용동향분석,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를 확인할 수 있다.
- 글로벌정보에서는 세계농업정보, 중국농업정보, 북한농업정보, 해외곡물시장동향, 농축산물수입동향(FTA)을 확인할 수 있다.
- 세계농업정보에서는 세계농업정보, 해외농업·농정포커스,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국가별 농업자료, 국제기구 동향, 국제 농업 정보, 세계 농업 브리핑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 세계농업정보에서는 (월간)세계농업정보, 세계농업전망, 해외 주재관 리포트, 뉴스레터를 확인할 수 있다.
- 해외곡물시장정보에서는 세계곡물의 가격동향, 수급동향, 관련지표,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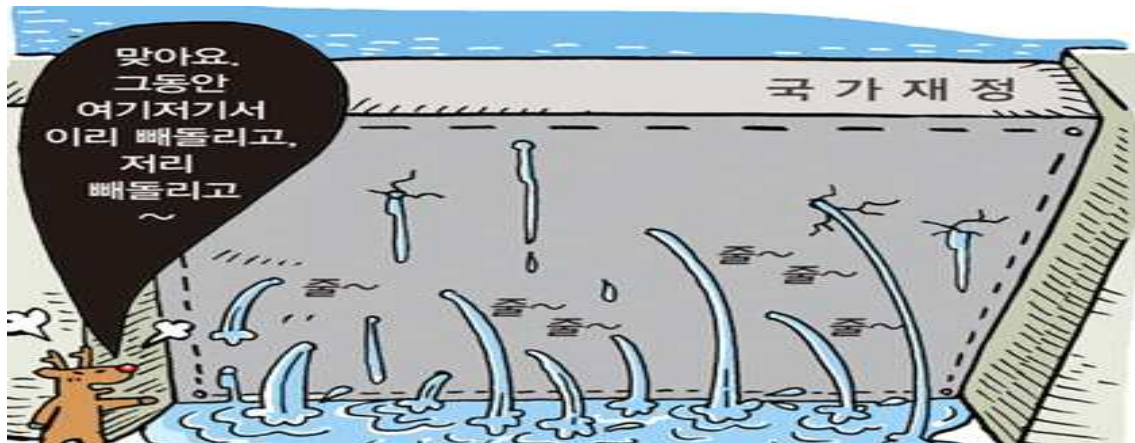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 농사에 필요한 수출입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 (www.kati.net)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농식품수출정보에서는 뉴스, 품목, 국가, 제도, 자료, 통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 뉴스의 수출뉴스에서는 시장동향, 수출입동향, 무역장벽,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 품목은 채소, 과일/임산물, 신선기타, 가공, 수산물로 분류되어 각 품목별로 생산동향과 유통 및 소비동향, 수출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 국가는 아시아,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중동/아프리카로 분류되어 각 나라별로 국가개요, 농업현황, 유통현황, 농식품소비현황, 유의/애로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제도는 제도통합정보, 비관세장벽, 인증, 식품첨가물을 확인할 수 있다.
- 자료는 발간책자, 보고서, 스토리뉴스를 확인할 수 있다.
- 통계는 월별, 지역별, 기간별 수출입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산타마을의 비리소동 (2)





주간 264호에 계속 연재됩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전남농업

VOL. 263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58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

